

베이징올림픽 영광의 얼굴들

10 ...10 ...10 ... 그대들은 진정한 '주몽의 후예'

“아버지 영전에 금메달 바칩니다”

양궁 남단체 금 박경모의 사부곡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금메달의 주역인 박경모(33·인천계양구청)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지난 5~6월 한 달 가까이 활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부친 박하용씨 걱정 때문이었다. 2남4녀 중 맏아들인 박경모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각별한 구석이 있었다. 충북 옥천 이원초등학교 4학년 때 활을 잡은 이래 어느새 24년째. 박경모에게 185cm, 76kg의 당당한 체격을 물려준 아버지는 장남의 곁에 늘 조용히 서있었다. 아들이 고교 최고의 공사로 불릴 때나 1993년 제3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금, 단체 은메달을 휩쓸며 세계적인 공사로 떠올랐을 때나 실업팀에서 7년 가까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박경모는 활을 쏠 때 생각이 많은 ‘장고(長考)’형이다. 잘 할 때에는 상관없지만 한두 번 실수로 지적을 받으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기 마련. 1994년 아시안게임에서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오른 뒤부터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진 그는 국내대회 개인전 64강에서 탈락할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들을 대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 말이 없었다. 1995년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박경모는 1999년 인천 계양구청으로 옮긴 뒤로도 1년 이상 하위권에서 헤맨 끝에 2001년 국가대표에 다시 뽑히며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후 8년째 대표팀에 있으면서 2001, 2003,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이겼다. 박경모에게 이번 베이징 대회는 마지막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올림픽 이후 은퇴와 코치 변신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 이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는 아들이 베이징 올림픽 2관왕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다. 2006년 월드컵 파이널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단체전용’이라는 딱지를 때어낸 박경모도 아버지 생전에 올림픽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올림픽 개막을 기다리지 못하고 6월10일 세상을 떠났다. 그때 마음으로 다짐한 금메달 두 개 중 한 개를 목에 건 박경모의 마음은 벌써 15일 남지 않은 결승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아! 아쉬운 마지막 한판 ‘부상투혼’ 그래도 잘 싸웠다

유도 남자 73kg 銀 왕기춘

너무나 아쉬운 한 판이었지만 왕기춘의 투혼은 크게 빛났다.

유도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따낸 왕기춘(20·용인대)은 레안드로 갈레이로(브라질)와 8강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치를 때 늑골을 약간 다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준결승 라슬 보키에프(타지키스탄)와의 경기에서 초반부터 여러 차례 배대뒤치기를 시도하며 경기를 주도한 왕기춘은 보키에프가 받은 지도 2개를 끝까지 잘 지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왕기춘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까머리 고등학교생이었다. 서울체고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왕기춘은 대학교 신입생이던 지난 해 3월에 당시 73kg급을 양분하고 있던 이원희(27)와 김재범(23·이상 한국마사회)을 연파하는 등 말 그대로 ‘월성 부른 나무’였다. 1988년 9월13일 생으로 아직 만 20세도 되지 않은 왕기춘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72kg급에서 김미정 현 용인대 교수가 금메달을 따낼 때 21살보다 1년 이상 어리다.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이원희와 비교해도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제패를 3년이나 일찍 해냈다. 따라서 은메달에 그쳤지만 자기 관리만 충실히 할 경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도계의 기대다. 올림픽에서 3회 연속 우승을 해낸 선수가 2004년 아테네 대회 남자 60kg급 노무라 다다히로(일본)를 통해 광주시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더욱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



물론 2016년 올림픽에도 28세 팔팔한 나이로 출전할 수 있다. 1회전 상대였던 리나트 이브라히모프(카자흐스탄)와 경기에서 상대 배대뒤치기에 넘어갈 뻔 하다가 그대로 누르기로 밀어붙여 포인트를 따낸 것에서 보듯 탁월한 유연성이 왕기춘의 최대 장점이 다. 몸이 유연하다 보니 상대 기술에 걸려도 빠져나가는 기술이 탁월하다. 5월 올림픽 대표선발전 승자 결승 이원희와 경기에서도 상대 기술에 크게 넘어가는 도중에 몸을 돌려 앞으로 떨어지며 실점을 면한 것도 좋은 예다. 다만 3회전에서 레안드로 갈레이로(브라질)전에서 나온 것처럼 확실한 한판 기술이 부족해 종종 연장전까지 끌려들어 가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호하는 여자 펜싱 남현희

11일 오후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 펜싱홀에서 열린 여자 플뢰레 4강전에서 남현희가 이탈리아의 지오바나 트릴리니를 상대로 득점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제화 도시’ 위해 U대회 유치 재도전해야”

市, 토론·각계 의견 수렴 후 재도전 여부 결정 방침

광주시의회·상의 주최 토론회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3차 토론회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광주의 국제 도시화를 위해서는 U대회 유치를 재도전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렸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관한 1, 2차 토론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엇갈렸으나, 광주시의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회가 8명 가운데 7명이 재도전에 찬성했다. 시는 3차례 토론회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의회, 지역 원로 등 각계의 의견을 물어 U대회 재도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11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재도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중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이중 전남대 교수, 김복현 광주여대 교수, 문덕형 광주상의 상근 부회장, 조병건 광주과기원 경영자협의회장, 김신기 남도일보 논설실장 등의 토론회가 하계U대회 유치 재도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철주 조선대 교수는



11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재도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U대회 재도전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도시마케팅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적 모델 창출 등을 위해 재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도전의 필요성으로 생활체육문화와 스포츠 문화 발전의 계기, 광주다운 대안관광 신관광 창조관광 모델 창출, 스포츠마케팅 전략의 테스트베드 계기, 광주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조산업 모델 창출 계기 활용 등을 꼽았다. 김복현 광주여대교수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단시간에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자긍심 고취는

물론 경제적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병건 광주과기원 경영자협의회장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시개발 전략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철웅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사회자가 공개적 찬성론자인데 이런 토론회를 거쳐 시민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재도전으로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재정자립도 50%에 불과한 광주가 지

철과 제2순환도로 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재도전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세금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장과 민자도로 유치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 결국 시민의 집이 될 것”이라며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이의단체인 상공회의소가 한다는 것은 재유치를 위한 명석깔기에 광주시의회가 뒷소매를 걷어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 재도전하라”

조선대 교수회·직원노조·총동창회 촉구

조선대 교직원과 동문이 ‘광주시의 U대회 유치 재도전’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의장 조범준)와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규), 총동창회(회장 이원규)는 11일 ‘광주시는 치밀한 준비로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재도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회 유치를 통해 광주시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더욱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인권과 정의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광주시를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유치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위장 소속 선정해야”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임명이 6개월째 미뤄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속한 선정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화콘텐츠 연구원 설립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해 (조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문

화컨텐츠기술연구원 설립은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놓여있고, 민자유치 핵심사업인 투자유치지구 조성사업 예산 69억원도 관련 부서에서 삭감될 위기에 있다”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상황을 최고위원회에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날 오후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해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나라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